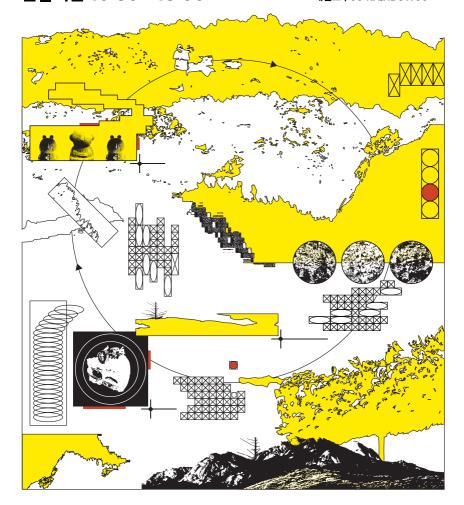
지구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목인박물관 목석원 기획전시실 전시기간 2024.5.1 - 7.31 관람시간 10:30 - 18:00 김은하 Eunha Kim 유화수 Hwasoo Yoo 임가람 Ga Ram Lim 최황 Hoan Choi 레인보우99 RAINBOW99



《지구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인류는 인간중심적 이데올로기를 안고 현대사회를 이룩해왔다. 그 결과 인간은 안락하고 편리한 삶을 영위하게 되었다. 동시에 인류의 번영 뒤에서 비인간으로 분류되는 존재의 희생과 멸종이 따르고 있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5인의 예술가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연, 도시 개발, 환경오염, 기후위기에 관한 이야기들을 풀어낸다. 이 전시를 통하여 인간과 지구의 공존 해법을 되짚어보고, 환경감수성을 기를 수 있기를 바란다.

«To Minimize Damage to the Earth»

Humanity has built a contemporary society on a human-centric ideology. As a result, humans have been able to lead comfortable and convenient lives. However, behind humanity's prosperity lies the sacrifice and extinction of beings classified as non-human. The five artists participating in this exhibition express stories about nature, urban development, environmental pollution, and climate crisis in various ways.

Through this exhibition, we hope to revisit solutions for coexistence between humans and the Earth and cultivate environmental sensitivity.

관람안내 Vistor Information

전시기간 Exhibition period

2024. 5. 1. - 7. 31

관람시간 Open Hou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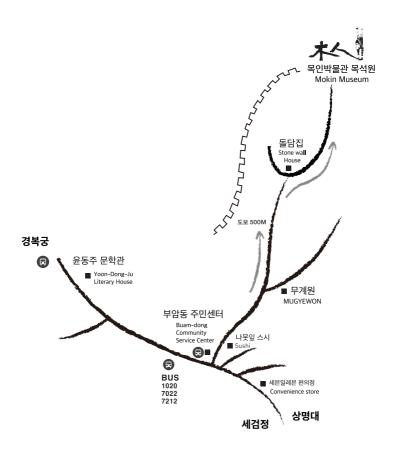
10:30 - 19:00 (입장마감 Last Entry 18:00)

오시는 길 Getting Here

경복궁역 3번출구 - 버스 1020, 7022, 7212 승차 - 부암동주민센터 하차

- 부암동 주민센터에서 목인박물관 목석원까지 도보 500m

Take subway Line 3 to GYENOGBOKGUNG station – Take 1020, 7022, 7212 Bus and get off at Buam–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 Walk 500m from Buam–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김은하 _ Various Beings

더 이상 소모되지 않지만 멀쩡한 옷들로 새로운 오브제를 만들어낸다. 옷들은 조각조각 해체되고 전혀 다른 질감의 조각들과 봉함되어 케이크, 꽃, 버섯 등으로 재탄생한다.

Eunha Kim, Various Beings

She create new objets d'art from clothes that are no longer worn out but still intact. The clothes are dismantled into pieces and stitched together with pieces of entirely different textures, reincarnating into cakes, flowers, mushrooms, and more.

유화수 _ 재배의 몸짓 -수목장-

이 작품은 수목장 터에서 사용된 돌, 나무, 이끼 등으로 이루어졌다. 자연으로의 회귀를 바라는 인간의 욕심과 비인간을 대하는 야만적인 행위를 마주한다.

Hwasoo Yoo, The Gesture of Cultivation -Woodland Burial-

This is composed of stones, wood, moss, and other materials used in a woodland burial. It confronts humanity's desire for a return to nature and the barbaric treatment of non-humans.

임가람 _ 조화로운 변화

구워내거나 굽지 않은 점토로 '동자석'을 재현했다. '동자석'이 자연스럽게 부식되는 과정을 통해 인간의 삶과 자연의 <조화로운 변화>를 지켜볼 수 있다.

Garam Lim, Harmonious Change

She recreated 'Dongjaseok' with unfired clay, whether baked or not. Through the natural erosion process of 'Dongjaseok', She can observe the https://documents.org/linearing/background-color: between human life and nature.

최 황_ 진경산수

우리나라 등산의 역사부터 인간 욕구에 의해 500년 산림이 벌목되는 모습도 담았다. 이 비디오는 산이 가진 이면의 실체에 접근하며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Hoan Choi, Real Landscape

The video shows a long-standing forest being damaged by human desires, starting with the history of mountain climbing in Korea. The video shows various images of the mountain and conveys a certain message to us.

레인보우99 _ 지금은 호랑이가 없다

인왕산이 주는 자연의 음과 기계음을 더해 음악과 비디오를 만들었다. 인간의 번영을 위해 자연이 희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RAINBOW99, There are no tigers now

He combined natural sounds and mechanical sounds from Inwangsan Mountain to create music and videos. This work delivers a message that we hope that nature will not be sacrificed for the prosperity of mankind.

《지구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제작 목인박물관 목석원 제작총괄 김의광 관장 전시기획 윤지민 학예실장 전시운영 전다빈 교육사, 서민지, 전채연 학예연구원 설치 이민규

오디오가이드 (주)오디언소리 목소리 윤덕원 (브로콜리너마저) 영상 인테러벵 필름 포스터 디자인 디폴트 프레임즈

